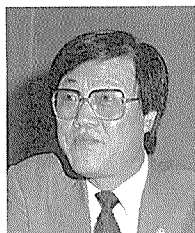


# 실질적인 정보처리 전문가 제도

몇해전 일본 검찰청 과학수사연구소를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허영계신 노인 한분이 필기구에 대해 연구를 위하여 평생을 한자리에서 연구해 오고 있는 분을 뵈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혼자만이 유일한 전문가라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연구소 내에서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분에 대한 예의는 깎듯했었다. 또한 연구소의 간부들은 그 연구소의 자랑일뿐 아니라 전 일본의 자랑이라고 까지 극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분은 박사학위는 고사하고 4년제 대학도 아닌 모 전문대학 출신임을 알았을 때에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미국이나 독일 등 구미 선진국도 어떤 형식 보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형식과 규정된 자격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위에 대한 맹신인 것 같다. 석사나 박사학위는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의 그 성취의 수준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만능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우리 정보처리 분야는 단순한 컴퓨터의 어떤 한분야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일부 전문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정보산업분야는 점점 기술이 세분화되어 수 십개의 전공분야로 나누어 지고 있어 좁게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대도 이 세분된 분야의 어느 한 부분을 전공하여 학



盧然煦  
대검찰청 전산실장

위를 받아도 우리 사회에 서는 마치 정보처리에 대한 만물박사인 것 처럼 생각하는 풍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느 분야의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하여는 제일 먼저 그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전산화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고위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그러한 기본구상도 없이 무조건 전산화 박사만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양자가 다 곤란을 겪는 결과만 갖어 오기 일수인 것이다. 정보처리의 전문가는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다. 많은 업무의 지식과 개발 경험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형식적인 자격이나 형식 보다도 실질적인 것을 존중하여 많은 경험과 개발실적이 있는 자들을 그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보처리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예우하며 이들로 하여금 전산정보 종합기획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보다 차원 높은 정보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필요(Need)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창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며 이 필요(Need)들은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업무를 구상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